

옥토에 떨어진 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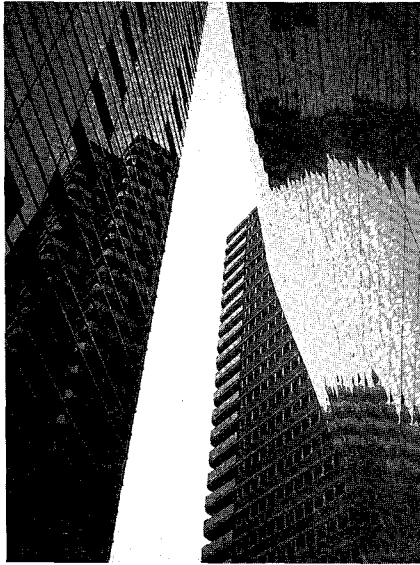
김성훈 / 생명의전화 상담부장

지나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산업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은 것도 같다. 잊혀지고 묻혀버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순리일 것 같다. 물론 지나간 일의 분석을 통해 고칠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겠으나,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든 터에 지나간 것을 재삼 거론하며 되씹는다는 것이 곰상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보며 너무나 잘 잊는 민족이라고, 좋지 않은 의미로 해석하여 칭한다. 쇠처럼 금방 뜨거워져 온통 떠들썩하다가도 얼마되지 않아 언제 그랬느냐십게 잊어버린다. 아 니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듯하는 것 같기도 하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나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깊은 뜻을 모를리 없지마는 아픈 상처를, 보기 싫은 흉터를 다시 꺼내어 새삼스레 우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리라.

사실 어느 사람도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꺼내어 들먹거리면 그다지 좋아할리

없겠으나, 그 과거지사가 어찌되었느냐가 현재를 만들어 놓았고 다시 이 과거와 현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연장선상에 나의 미래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역사는 대체로 그렇게 흐르게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보았다.

가끔 어처구니 없는, 당황케하는 사건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울하고 슬프게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화나고 분하게 하는 짓거리들을 볼 수 밖에 없을 때마다, 실망을 넘어 절망에 가까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제를 생각하고 바로 그 어제 때문에 이 모양이된 오늘을 통탄해 하며 그래서 생길 내일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의 본질은 어제나 오늘에 있지않고, 닥쳐올 내일이 두렵고 암담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부분, 즉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다 그렇다. 딱히 어느 것이라고 지적할 수 없으나 어차피 사회 구조란 거미줄처럼 얽혀 무슨 문제건 그 근원을 어느 한편에서만 해결로 정리될 수는



어느 것이든지 우리는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는 막연하나마 위기감을 갖고 있다.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하기를 추구한다면...

없다. 텔레비전의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현재 초점이 되는 시사적인 현안에 대한 제각각의 의견을 들으면서 실감하게 된다. 사계의 전문가들의 진단과 그 대책을 들으면 그저 옳지않은 말이 없다. 비록 내가 보는 관점과 시각의 차이로 다른 의견을 갖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의 권위를 지닌 논리 정연한 말씀을 들으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여론, 그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아주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그게 전부 가능할까 생각해 보게된다. 그렇더라도 그 날 나온 좋은 말씀들이 하나씩 만이라도 해결되어진다면 훨씬 나은 세상이 되련만, 얼마지난 어느날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고 비슷한 진단과 대책이 되풀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문제는 그 근원적인 대책을 찾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 의지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아니면 우리 사회가 바로 내 문제가 아니면 곧 잊어버리는 무관심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있거나, 웬만하면 눈감고 지나치는 것이 편하리라 여기는 무사안일의, 무책임의 습성들로 만연되어 있다고 하겠다.

어느 것이든지 우리는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는 막연하나마 위기감을 갖고 있다.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하기를 추구한다면 반복되는 오류의 흐름을 차단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점점 우리의 막연한 예감대로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그 흐름을 막을 주역을 담당해야 하는가. 당연히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층의 역할이요 의무일 것이다. 반드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세대를 바로잡아,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고, 해야할 일들이 당연히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모습이야 한다. 누가 그 지도자들인가. 머리 속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각계의 유명 인사들을 연상하게 될 수도 있으나, 다름아닌 나와 우리들이어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킬만큼 내게 그 무엇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저그런 삶을 산다는 건 죄라는 생각이다.



신약 성서에 보면 예수께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구절이 나온다. 씨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열매를 맺기는 커녕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사는 모습으로 견주어 생각되어진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못먹고, 못입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나타낼 것 하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우리들은 그 비유 속의 엉뚱한 곳에 뿌려진 씨가 곧 내 모습이라고 느껴지게 될 지 모르나, 깊이 생각하여 보고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래도 있는자에 속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신체 장애자나 정신 장애자를 보면 더욱 그렇고, 아무 대책없이 남겨진 영세 가정의 소년소녀가장들을 봐도 그렇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비록 힘들고 괴롭고 험하다하여 가만히 서서 될대로 되라라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세상을 변화시킬만큼 내게 그 무엇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

다고 그저그런 삶을 산다는 건 죄라는 생각이다.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뉴 키즈」의 공연으로 장안이 떠들썩한 사건 때, 저마다 우리 부모들의 의식의 문제를, 교육과 입시제도의 문제를, 건전한 청소년 놀이 문화 부재의 문제 등을 이야기 했었다. 그전에도 그랬다. 그래도 변한 것이 없다.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 야기된 것이 어디 요즘뿐인가. 오래전부터였다. 폐놀 사건으로 강물과 식수의 오염이 초미의 관심이 됐다. 지금도 낙동강엔 그 때보다 더 많은 양의 폐놀을 비롯한 공해물질이 방류되고 있다하고 그 물이 우리의 식수로 사용되기에 아무 걱정없는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하기가 꺼림직하지 않을까. 강물과 대기 오염의 심각성이 꼭 폐놀 때문이였는가.

세상은 변한다. 편리하고 좋게만 변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찌꺼기들도 물론 채 변해간다. 그래서 보기 흉하고 냄새가 나는 부분도 많다.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면서 역사와 세상을 논하지 말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역사와 세상으로 뛰어들어 보자. 뛰어든다는게 별것인가. 내 삶 속의 거짓과 불의들을 제거하고, 남들이 좀 비웃더라도 나름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선 나와 나의 기록과 내가 속한 사회에서부터 과거의 때를 벗겨버리고, 뒤흔 생활을 위해 바보처럼 뛰어보자. 위기가 희망의 문으로 바뀔 때까지. 卍

사랑으로 낳은아기 비시지로 결핵예방